

메시지 6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의 혼이 변화됨으로 생명이 성장함

성경: 고후 3:16-18, 롬 12:2, 고전 3:6, 9, 12-13, 빌 2:2, 엡 4:12-16

I. 우리의 영이 거듭나는 것은 한 순간에 일어나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지만(고전 15:51-52), 우리의 혼(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긴 과정, 곧 긴 '터널'이다.

- A. 우리의 영적인 생활은 거듭남으로 시작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을 때,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때 이후로 삼일 하나님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영 안에서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다 — 요 3:6, 1:12-13, 롬 10:12-13.
- B. 이제는 그분께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시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시어 우리의 혼을 적시실 때 우리는 변화된다 — 고후 3:16-18, 롬 12:2.
 - 1. 변화는 우리의 혼이 삼일 하나님으로 적셔지는 것이다.
 - 2. 거듭남은 우리 영의 출생이며, 변화는 우리 혼의 적셔짐이다.
- C. 변화는 신진대사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변화는 외적으로 바꾸거나 교정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이들 안에서 발휘하는 신진대사적인 기능이며, 밖의 표현을 산출한다.

II. 믿는 이들이 기꺼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자라고자 한다면, 신성한 생명의 요소가 그들 안에서 증가하여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산출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내적인 기질은 변화될 것이고, 그들의 외적인 형상 또한 변화되어 주님의 형상과 같아질 것이다 — 고후 3:18.

- A. 내적인 신진대사를 통해 외적으로 표현된 것만이 진정으로 건강한 상태이고 참된 아름다움이다 — 비교 출 28:2, 롬 13:14, 12.
- B.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이러한 변화는 자기 수양(修養)의 결과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주 영, 곧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어, 우리 안에 신성한 생명의 요소를 증가시키심으로 신진대사적인 변화를 가져오신 것이다.
- C.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이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으로 확장될 때, 신진대사의 내적 과정이 시작되어 결국 외적인 나타남이 있게 된다. 이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나타난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빌 1:19-21상.
- D.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리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이것이 곧 변화이다. 우리가 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주님을 만지고 그분의 요소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신진대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결과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며 주님을 표현할 것이다 — 고후 3:16-18.
- E.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상의해야 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 빌 4:6.
 - 1.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만 그 문제를 주님께 말씀드리기만 하면 된다. 주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고, 얼굴을 마주 대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신다 — 비교 출 33:11.
 - 2.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오, 주님! 이러한 염려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이것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의 요소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신진대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 3. 이 비결(빌 4:12, 6)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일로 여긴다. 사실상 우리는 단지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을 실행하기만 하면 된다. 이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III. 참된 생명의 성장은 혼의 변화이다.

- A. 열 처녀의 비유에서(마 25:1-13), 주 예수님은 열 처녀의 등과 그릇에 대해 말씀하셨다. 현명한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 모두가 그들의 등에 기름을 갖고 있었지만(8절), 현명한 처녀들만이 그들의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었다.
 - 1. 두 부분에 기름이 필요했다. 즉 등을 위해 기름이 필요했으며 또한 그릇을 위해 기름이 필요했다.
 - 2.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등에 기름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영(잠 20:27) 안에 그 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그릇(롬 9:21, 23), 곧 우리의 혼에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 3.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인지 현명한 처녀인지는 우리의 영에 달려 있지 않고 우리의 혼에 달려 있다. 우리의 영은 거둬냈지만 우리의 혼은 그 영으로 적셔져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그릇에 여분의 기름을 가져야 한다.
- B. 이러한 비유는 우리가 거듭난 후에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 즉 생명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의 영 안에 거하는 생명은 우리의 혼을 적실 때까지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신성한 영의 새로운 요소들이 우리의 혼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혼은 유기적으로 변화되며, 이러한 변화가 생명의 성장이다.

IV. 고린도전서 3장은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농장)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면, 그날에 각 사람의 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 6, 9, 12-13절.

- A. 이러한 구절들은 변화와 생명의 성장이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하나님의 농장에서 자라는 식물로 출발하지만, 마지막 결과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이다.
- B. 건축물이기도 한 이러한 농장은 내주하시는 영께서 어떻게 우리의 영에서부터 확장되시고 우리의 혼에 침투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 준다.

V.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의 혼 안으로 확장되시고 우리의 혼을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 되어 혼 안에서 ‘연결될’ 것이며, 타고난 관념들은 확장되시는 영께 자리를 내어 드릴 것이다. 이것이 생명이 성장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명이 성장하는 것에서 하나가 나온다 — 빌 2:2.

- A. 빌립보의 성도들은 거듭남을 통해 그들의 영 안에는 그리스도를 갖게 되었지만, 변화를 통해 그들의 혼 안에는 그리스도를 갖지 못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혼 전체를 적시시고 점유하시게 할 때에만, 그들은 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었다.
- B. 우리의 혼이 유기적으로 변화되기 위하여 내주하시는 영께서 우리의 혼을 철저히 적시시도록 허락해 드릴 것인가? 우리의 영뿐 아니라 우리의 혼에까지 침투하실 수 있는 자유를 그 영께 드리겠는가? 우리의 혼이 내주하시는 영으로 적셔질 때, 우리는 새사람과 하나이며 몸 안에서 건축된다.

VI. 에베소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 생명의 성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 A. 우리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 그 영으로 적셔짐으로써 일어난다. 주님께서 새사람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이 자라야’ 한다 — 엡 2:15, 4:23-24, 골 3:10-11.
- B.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때, 그분은 이 땅에서 새사람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수행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추구하고 계신 목표이다.
- C. 이것이 실현되도록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자. “주님, 저의 영에서부터 저의 혼으로 주님 자신을 확장하소서. 저의 혼을 적시소서. 신진대사적으로 저를 변화시키소서. 저는 유기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 D.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생명의 성장으로 인해 변화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몸 안으로 건축될 것이고 새사람의 지체들이 될 것이다. 새사람의 출현이 주님의 목표이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하나 되어, 한 새사람인 몸의 건축을 위하여 혼이 변화됨으로 생명이 성장하기를 추구하자.